몰입도 높은 CG법회, 신세대 '인기몰이'

프로젝션 빔 활용해 법회 여는 日사찰 눈길

박영빈 객원기자

엄숙한 분위기로 일반인들이 쉽게 발을 들이기 힘든 이미지를 가진 사찰 법당.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컴퓨터 그래픽(CG)과 프로젝션 빔을 사용한 법회를 여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산케이 뉴스'는 7월 16일 프로젝션 빔으로 극락과 지옥을 표현한 법회를 보도했다.

도쿄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사찰 마치야 코묘지.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법당 불단엔 아미타불상이 모셔진 평범한 모습이지만 매월 1회 '프로젝션 맵핑법회'를 봉행한다. 프로젝션 맵핑이랑 건물의 벽면 등에 영상을 비춰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법당의 벽과 마루를 활용해 스크린에 표현되는 프로젝션 맵핑의 스토리는 '지옥과 극락정토'다.

먼저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흐름을 나타낸다. 배경음악으로는 시원한 바람소리와 산새소리, 영상도 꽃과 나무가 가득한 희망찬 이미지다. 그러나 까마귀 떼가 화면을 가르고 순식간에 화염이 타오르는 지옥 이미지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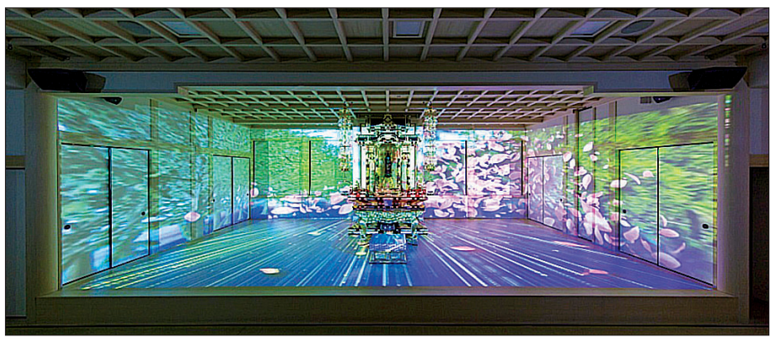
프로젝션은 바닥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미지를 비추고 배경음악도 아비규환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광경들이 펼쳐진다. 이러한 지옥을 진정시키듯, 법당 한 편으로 스님이 걸어 나온다. 프로젝션 빔은 스님을 따라 밝은 빛을 비추고 불단 앞에 앉은 스님이 염불을 시작한다.

스님의 염불에 따라 지옥의 불이 서서히 식고, 고통 받던 영가들의 비명도 줄어든다. 스님의 독경이 끝날 무렵, 불단에 모셔진 아미타불로부터 오색광명이 뿜어져 나온다. 법당의 벽과 바닥에도 꽃잎과 금빛 모래가 일렁이는 극락의 이미지가 펼쳐진다.

매월 '프로젝션 맵핑법회' 여는
일본사찰 마치야 코묘지 입소문
주제 바꾸며 다양한 영상 선봬
40대 미만 법회 참가자 늘어나

약 10분간 진행되는 프로젝션 맵핑법회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일순간 이곳이 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고 한다.

주지인 오호라 타츠노리(49) 스님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법회에 도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 "원래 사찰은 그 시대의 문화와 학문을 선도하는 장소다. 그렇다면 최신 디지털 기술과 무대공연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회야말로 본래 사찰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프로젝션 맵핑으로 표현한 극락정토. 입체적인 영상이 법회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사진출처=산케이 뉴스

오호라 스님은 CG와 프로젝션 맵핑이라는 디지털 기술에, 원래의 스님들이 진행하는 법회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합친 결과가 지금의 법회라고 말했다. 실제 법회에서 영상만을 틀어주기보다는 등장인물로 스님들이 실제 등장하고, 염불과 같은 의례를 공연요소로 적용하였기에 참가자들이 더욱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법회를 마치고 나서는 참가자들에게 연꽃잎모양으로 만든 작은 책갈피와 참배증서를 수여한다. 책갈피에는 봉황이나 춤을 추는 천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불교를 체험했다는 인식을 참가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오호라 스님은 "현대인들에게 당장 법문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하기보다 먼저 영상과 음악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느끼고 관심 가지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회의 프로젝션 영상은 그때의 절기에 따라 변화를 준다. 스님은 "지금은 백중기간이기에 젊은 층이 잘 모르는 백중의 이야기와 다음 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극락 지옥을 선택했다. 다음 달에는 부처님의 출가 전 이야기를 주제로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회가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층의 참가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실제 프로젝션 맵핑법회에 참석하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40대 미만이어서 일반적인 법회 참가연령대와 비교할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한다. 참가자들은 "불교에 흥미가 생겼다" "절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게 될 줄 몰랐다. 너무나 신선하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불교지도자 까르마빠, 미국 망명설 점화

美 전법활동 이후 인도 재입국 불가능 추측 따라

달라이라마에 이어 중요한 불교지도자인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르제(33)가 미국으로 전법활동을 떠난 후 인도 재입국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6일 현지 언론 '더 트리뷴 인디아'는 이 문제를 보도하며 다양한 추측을 제시했다.

까르마빠는 지난해 5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유럽과 북미지방 전법을 위해 인도를 출국한 이래 지금까지 인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망명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까르마빠 측은 수개월 전에 이에 대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치료와 휴식을 위해 머물고 있을 뿐 망명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귀국 의사를 밝힌 까르마빠가 시간을 넘기면서 다시 망명설이 나오고 있다.

'더 트리뷴 인디아'는 까르마빠의 미국 망명 또는 무기한 현지체류의 가능성을 히마찰프라데시 주 경찰 및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제시했다.

지난 2000년에 1월, 종교의 자유를 찾아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한 까르마빠는 전통적인 주석사원인 시킴주의 룸텍 사원으로 가길 요구했으나 인도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인도 당국은 까르마빠 환생자 논쟁, 중국 스파이설, 중국 정부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17대 까르마빠의 외부 활동에 제약을 걸었다.

'더 트리뷴 인디아'는 정보부 요원의 말을 인용해 "까르마빠는 미국에서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중 접견에서도 큰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심지어 중국대륙에서 온 인사들까지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며 "까르마빠 스스로가 미국 생활에 만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성 발언을 제시했다.



미국법회에서 기도 중인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르제'. 사진출처=Karmapa U.S.

일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인도당국이 까르마빠에게 제공된 보시금에 대해 불법모금 혐의를 걸고 있다"며 "금전적인 문제도 한 몫 하는 게 아니겠냐"는 추측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인도당국은 외국 재단이 직접적으로 까르마빠에게 보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까르마빠 공식 사무국과 티베트 망명정부에서는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까르마빠의 현 거처인 규뙤사원의 소식통은 "까르마빠의 일정과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올해 귀국은 무리로 보인다. 단 귀국이 늦어지면서 현지 티베트인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동굴 소년들, 단기 출가… 구조대 추모

기독교도 제외한 12명
삭발후 9일간 승려체험

태국 치앙라이에서 동굴에 갇혔다가 17일 만에 극적 구조된 소년들이 단기 출가했다. 이들은 동굴에 갇혀 있는 동안 불교 명상을 통해 굶주림과 공포를 이겨냈다고 전해져 화제 된 바 있다.

방콕포스트 등 외신은 '동굴 소년'들이 7월 24일(현지시간)부터 9일 간 승려로 생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9일'은 이들이 수색대에 발견되기 전 동굴에 갇힌 시간과 같다고 더가디언은 설명했다.

13명 생환자 중 유일한 기독교도인 아둔 삼온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8월 4일까지 승려 생활을 한다. 아둔 삼온은 자신의 종교에 따라 머물던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동굴 소년들은 지난 24일 삭발한 후 왓 프라 탓 도이 와오 사원에서 불교 귀의 의식을 치렀다. 사진출처=더가디언

동굴 소년들은 지난 24일 삭발한 후 왓 프라 탓 도이 와오 사원에서 불교 귀의 의식을 치렀다. 이들은 흰색 예복을 입고 엄숙한 의식에 임했다. 승려들은 염불로써 그들의 생환을 축복했다.

치앙라이 지역 불교계 지도자 쁘라푼 콤조이는 "12명 유소년 축구팀 선수 및 코치는 각자 다른 사원에 들어가 9일간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소년들은 의식을 통해 '넨'이라 불리는 불교 초심자 단계에 올랐다.

불교도가 대다수인 태국에서 남성의 단기 출가는 전통 의례와 같다. 의식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법명(法名)을 받고 계율에 따라 생활하며 명상 수련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단기 출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수색 작업 중 희생당한 태국 해군 사만 쿠난(37)을 추모하는 의미인 것. 태국이 속한 '테라와다(Theravada)' 불교권에서 승려가 되는 것은 한 인간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 하나다. 소년들은 퇴원 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불교 사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소년들에 대한 인터뷰를 금지했다. 소년들은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무 빠'(야생 멧돼지) 유소년 축구클럽 소속 선수들과 코치 13명은 지난 6월 23일 훈련을 마치고 매사이 지구 탐루엉 동굴에 들어갔다가 갇혔다. 폭우로 인한 수심 증가가 원인이었다. 이들은 실종된 후 열흘 만에 생존이 확인됐고 17일 만에 모두 생환했다. 소년들은 동굴에 갇힌 동안 과거 승려 생활 경험이 있는 엑까뽄 찬따웡(25) 코치 지도에 따라 불교 명상을 했다고 전해졌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티베트 학생들 종교활동 전면 금지

티베트 제재조치 분석… 동의서 서명까지 받아

중국 정부가 티베트 학생들의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7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티베트 학생들은 오는 여름 방학 동안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중국 당국이 전통적으로 불교도인 티베트 학생들에게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

해당 정책은 중국이 티베트 불교문화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신들은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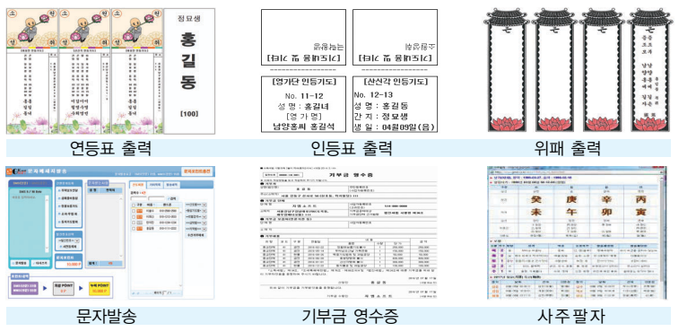
티베트 수도 라싸 지역 한 중학교의 정치 교육 부서장 초펠(Choephel)은 "부모와 교사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중국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힌두스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초펠이 근무 중인 해당 부서는 전화번호도 없고, 외부로부터 엄격히 제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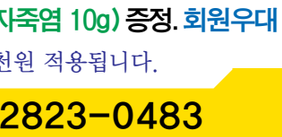


티베트 학생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오는 여름방학 동안 종교활동이 금지됐다. 사진출처=홍콩스탠다드

중국은 티베트가 7세기 이상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었으며, 달라이 라마를 당국에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보고 있다. 반면 티베트인들은 1950년 중국 공산당의 인민군이 히말라야 지역으로 진격하기 전 본질적으로 독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GM SOFT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스틸한옥
업 일주문 | 가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